

날짜 2024-09-15(D1) 본문 눅22:14-23
번호 2561 설교 변일국 목사
구분 주일예배 찬송 찬29 '성도여 다 함께'

시작 주기도
찬송 찬29 '성도여 다 함께'
기도 권영희 사모
본문 눅22:14-23
설교 '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'의 속뜻
찬송 찬232, '유월절 때가 이르러'
봉헌 권영희 사모
광고

① 번역 및 블로그

AC.298, 창3:22, '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이'(AC.298-304)

② 추석(17일, 화) 연휴

추석을 맞아 어제부터 긴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. 속 사람의 상태가 늘 천국을 받을 수 있는 복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.

헌금기도

¹⁰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
¹¹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(사58:10-11)

오, 주님, 주님을 찬양합니다.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 저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주께 드리오니 이것이 주린 자와 괴로운 자를 돕는 일, 곧 주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..

축도

이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도우심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,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

오,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,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면서 누가복음 22장 세 번째 본문, 주님도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의 시작을 알리는 만찬을 통해, 그러나 특별히 ‘주의 성찬’(The Lord’s Supper)을 제정하시는 아주 특별한 본문입니다.

오늘 본문 역시 매우 익숙한 본문이지만, 그러나 평소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사실은 알쏭달쏭했던 말씀들, 가령, ‘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 회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’라든지, ‘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’, ‘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’와 같은 말씀들을,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 아주 명쾌하고 시원하게 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 그동안 유월절 마지막 만찬 본문을 통해 매월 월초 성찬식을 통해 떡과 잔, 즉 주님의 몸과 피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나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, 본문 사이사이 하신 이런 주님의 말씀들에 대해서는 사실 평소 좀 어리둥절해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나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그 명확한 의미, 그 속뜻, 그 아르카나를 알게 되어 얼마나 개운한지 모르겠어요. 아, 참 감사합니다.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지만, 그 가운데서도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 본문은 그 비밀의 깊이와 높이, 영원함에 있어 정말 으뜸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오늘 주신 이 감동과 감격이 남은 생애 늘 저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오, 주님,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! 주님을 사랑합니다.

간절히 기도하는, 이 자리 모인,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든 주의 자녀들 심령 가운데, 생활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,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!